

# 대학생들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이유와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성별과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을 중심으로

## Motivations for Internet Pornography Search and Perception on Cybersex : Focusing on Gender and Internet Pornography Use

심재웅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Jae Woong Shim(jwshim@sookmyung.ac.kr)

### 요약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 이유와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성별과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경험이 있는 남녀대 학생 203명의 응답을 이용했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이유는 파트너와의 성관계, 자위행위, 성적호기심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남성들은 직접적 성관계와 자위행위를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탐색하고 있었지만, 여성들은 성에 대한 궁금증 및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탐색하고 있었다. 사이버섹스는 대안적 섹스와 실제 섹스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남녀 모두 온라인에서 파트너와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 으면서 성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성관련 건강에 대한 함의가 함께 논의되었다.

■ 중심어 : |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 사이버섹스 | 성관련 건강 | 성별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tivations for internet pornography search and perception on cybersex focusing on the role of gender difference and previous internet pornography use with 203 college students. The motivations included sexual relationships, masturbation, and sexual curiosity factors. Males searched for sexual relationships and masturbation, but females searched for satisfying sexual curiosity. The perception on cybersex included 2 factors—alternative sex and real sex. For males and females,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perceptions of engaging in sexual behavior exchanging sexual messages online similarly.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were discussed in terms of sexual health.

■ keyword : | Internet Pornography | Cybersex | Sexual Health | Gender |

## I. 서론

한국사회에서 포르노그래피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언론은 포르노그래피를 성범죄와

성폭력을 비롯해 각종 성적 일탈을 야기하는 직접적 요 인으로 규정하고[1][2], 정부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강 령한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포르노그래피 소비는 지속적으로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SRC여성질환연구센터 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2011)

접수번호 : #130326-002

접수일자 : 2013년 03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5월 08일

교신저자 : 심재웅, e-mail : jwshim@sookmyung.ac.kr

증가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2007년 한 인터넷 소프트웨어 평가업체는 한국이 1인당 포르노그래피 소비에 지출한 비용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국가라고 분석했다[3]. 청소년들이 처음 포르노그래피를 접하는 연령도 빨라지고 있으며[4], 모바일을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는 이른바 섹스팅(sexting)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조사됐다[5]. 그동안 포르노그래피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여성들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소비도 증가 추세다[6]. 이와 함께, 인터넷을 매개로하는 섹스를 의미하는 사이버섹스(cybersex)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Cooper는 익명성(anonymity), 접근성(accessibility), 경제성(affordability)의 앞 글자를 따 Triple A가 이러한 추세의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했다[7].

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포르노그래피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었고 엄밀한 연구방법들이 시도되었다. 포르노그래피의 효과는 내용, 개인차, 노출량 등의 요인에 의해 달라지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8-10]. 따라서 포르노그래피의 부정적 효과는 여전히 가설단계일 뿐이라고 결론짓는다[11]. 반면, 국내에서는 포르노그래피의 효과를 단정하기에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현실임에도 정황적 근거나 감정적 호소를 통해 부정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섹스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지나 연예전문지 등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신문사나 방송보도에서도 사이버섹스 문제가 거론된다. 기사들의 대부분은 사이버섹스를 인터넷 기술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형식의 비정상적 섹스로 분류하면서 선정성 혹은 범죄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사이버섹스 또한 포르노그래피 소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이버섹스는 결국 새로운 여성의 성적 착취라는 입장도 있지만, 여성에게는 성적자유와 기회의 확장이자[12], 오프라인에서의 친밀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13].

한국과 같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낙인이 강한 문화에서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그래피 탐색이 증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사이버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부정적 담론만이 지배적인 가운데 인터넷과 성에 대한 본질적 측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연구는 기존 포르노그래피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이용되어 온 응답자의 성별 및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노출량과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 이유 및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성별과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노출량은 대학생들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 이유와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변인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는 특히 성관련 범죄와 원치 않는 임신이나 기타 성관련 질병을 포함한 성관련 건강문제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II. 문헌검토

### 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

인터넷에서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행위는 가장 적극적이며 의도적인 온라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포르노그래피 탐색행위가 타인에게 발각이 된다든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14].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연구들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이유를 밝히려는 시도를 해왔다. 예를 들어, Paul과 Shim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이유를 성적관계, 기분전환, 습관적 이용, 성적환상 추구라는 4가지 요인으로 구분했다[15]. 이러한 탐색이유는 성별과 성에 대한 태도(sexual affect)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응답자들이 여자응답자들에 비해 4가지 탐색이유가 모두 강했고,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기분전환과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편, Boies는 캐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40%가 성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

용하며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16]. 이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성적 행동과 관련한 항목을 통해 응답자들이 성적 파트너를 찾거나, 성과 관련한 오락추구, 자위행위나 포르노그래피를 보기 위한 성적 만족 추구, 성관련 정보의 추구라는 4가지 요인을 추출했다. 대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의 71%가 온라인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된 가운데 이중 41%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17]. 한편,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은 오히려 외로움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8][19]. 이는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이용하지만, 결국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의 좌절감과 외로움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에 있어 기존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밝혀왔다. 하지만, 여성의 포르노그래피 이용과 관련해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전반적인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의 증가와 성과 관련한 이용채널의 확장이라는 점이다. Yoder와 동료들은 포르노그래피는 남자들만 이용하는 것이라는 믿음은 신화(myth)라고 주장한다[19]. 2010년 워싱턴 타임스는 2003년과 2006년 인터넷 조사를 인용하면서 여성의 17%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중독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2008년 조사에서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자의 약 30%가 여성이라고 보도했다[20]. Carey는 남녀 모두 포르노그래피 중독으로 인한 둔감화(desensitiz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성들일수록 포르노그래피 이용에 대한 죄책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주장한다[18]. 이러한 패턴은 여성들의 포르노그래피 소비는 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검열도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동과 인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조화는 여성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채널은 로맨스 소설, 채팅방, 웹캠사이트와 같은 인터랙티브 기반의 로맨틱한 것들이었지만, 최근 다양한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로 이동하고 있다[19].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이유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한,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노출량이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이유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성별과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에 따라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 이유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 2. 사이버섹스(cybersex)

사이버섹스는 인터넷섹스 또는 넷섹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일관된 정의는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성적 목적을 가진 모든 인터넷 활동이 사이버섹스로 정의되었다. Delmonico는 성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다양한 행위를 사이버섹스라고 정의하면서, 사이버섹스에는 온라인 포르노그래피 교환, 실시간 성적 메시지 교환, 성적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고 보았다[21]. Cooper와 그의 동료들은 9천명이 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의 성에 대한 강박관념 정도를 기준으로 성적강박이 없는 집단, 성적강박이 중간인 집단, 심한 성적강박 집단, 그리고 사이버섹스 강박집단으로 구분했다[22]. 연구자들은 사이버섹스 강박집단을 성적강박관념이 전체 평균에서 2표준편차를 넘고 오로지 성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일주일에 11시간 이상 사용하는 집단으로 정의했다.

한편, Döring은 사이버섹스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영상물, 이미지, 혹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최소 두 명 이상이 성적 흥분과 만족을 위해 실시간 디지털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12]. 이와 함께 사이버섹스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아니며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성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Dryer와 Lijtmaer는 사이버섹스를 남녀 파트너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와 함께 자위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23]. 이들도 사이버섹스는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를 보는 것보다 더 도착적이라는 점에서 실제 성관계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심영희는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하며 생물학적이거나 언어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현실섹스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정의했다[13]. 심영희는 사이버섹스가 인터넷의 기술적 심리적 특징과 상호정체성을 인정하고 능동적 우발적 사랑을 통한 특별한 관계 맺기 중심의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이 결합한 형태라고 보았다[13]. 이 연구들은 사이버섹스가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행위와는 다르며,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매개로 이성 혹은 동성 간에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 성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르투갈 사람들의 온라인 채팅룸 이용에 관한 분석 결과, 사이버섹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만남을 위한 시작점으로 인식하는 유형과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관심 없이 단순히 온라인 섹스를 원하거나 선호하는 유형으로 나뉘었다[24]. 전자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거절이나 사회적 제약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Brand와 동료들은 사이버섹스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성적 각성(arousal), 편집증(paranoid ideation), 정신증적 경향성(psychoticism), 공포불안(phobic anxiety) 등 심리적 요인들과 다양한 성 관련 인터넷 사이트 복합적 이용량(예: 웹캠, 채팅, 섹스 사이트 등)이 높을수록 사이버섹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25]. Goodson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접속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220명 중 15%가 자위행위를 했고, 약12%는 파트너와 사이버섹스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26]. 사이버섹스를 하면서 술과 마약을 한 경우도 각각 8명, 3명이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에 대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사이버섹스 빈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육체적 피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향후 사이버섹스는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현영과 김성숙은 사이버섹스는 인터넷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게임, 채팅 및 메일 등 노출적이고 음란한 성관련 내용을 통해 성적욕구를 충족

시키는 모든 행위로 정의했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사이버섹스 중독이 높았고, 이러한 사이버섹스 중독은 청소년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악화시키고,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며, 성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견했다[27].

이러한 사이버섹스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식의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라고 간주하는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여성들에게 보다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12][13]. 그러나 Döring은 이러한 극단적 입장보다는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성찰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여성에게 사이버공간의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 특성,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확장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12]. 심영희는 사이버섹스가 대리만족이나 권력의 불평등 재편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성적 자유를 통한 여성의 성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이버섹스는 새로운 친밀성의 탄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3].

사이버섹스에 대해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여성들은 이러한 사이버섹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많이 이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이버섹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점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문제 2] 성별과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에 따라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 III. 연구방법

#### 1. 개요

이 연구는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용

통해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지를 구축한 후, 설문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설문 링크를 이메일로 전송했다. 응답자들이 가능한 사이버섹스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설문에 앞서 사이버섹스는 “인터넷으로 포르노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탐색하는 행위가 아니라 두 명 이상이 성적흥분과 만족을 얻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나누는 성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안내했다. 질문지의 성격상 민감한 질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도중 불편함을 느끼거나 응답하기 싫을 때는 언제든지 중간에 멈출 수 있도록 했다. 꼼꼼하게 설문에 응할 경우, 약 30분이 걸렸다. 50%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와 연구목적상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203명의 응답을 분석에 이용했다(남자 65%, 여자 35%).

2. 변인의 측정

·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이유: 응답자들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이유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12개 항목을 구성했다[14-16]. 여기에는 “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파트너의 요구로” “성적 흥분을 위해” 등 12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요인분석을 통해 “직접적 성관계” “자위행위” “성적 호기심”의 3가지 요인을 추출해 분석에 이용했다[표 1].

·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군손과 동료들[28]이 제시한 항목을 이용했다. 9가지 항목 중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4가지를 선택했다. 여기에는 “사이버섹스는 실제 섹스다” “사이버섹스는 육체적 피해가 없는 섹스다” 등의 항목들이 포함됐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대안적 섹스”와 “실제 섹스”의 2가지 요인을 추출해 분석에 이용했다[표 2].

·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 한 달 평균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를 질문했다. 응답자들은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5번, 매일같이 중 하나를 선택했다. 여자 응답자의 경우 약 87%가 한 달에 3번 이하로 접속한다고 응답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접속하는 비율은 약 4%로 나타났다. 남자 응답자의 경우 일주일에 4-5번 이상 접속하는 비율이 약 8%, 1-3번 접속하는 비율은 약 38%로 나타났다. 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른 응답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용량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했다.

IV. 연구결과

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이유와 사이버섹스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

남녀 대학생들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이유에 관한 요인분석이 [표 1]에 제시됐다. 먼저, 성에 대한 콤플렉스 극복, 파트너의 요구, 포르노 스타라는 환상, 성관계 전후 강한 성적 자극, 새로운 성적 체위, 기이한 섹스 행위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는 제1요인은 “직접적 성관계”라고 명명했다. 대부분의 항목이 직접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alpha=.83$ ,  $M=1.62$ ,  $SD=.66$ ). 성적 흥분, 자위를 위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라는 항목을 포함하는 제2요인은 “자위행위”라고 명명했다( $\alpha=.78$ ,  $M=2.62$ ,  $SD=1.04$ ). 마지막으로 호기심, 성에 대한 지식, 따분해서를 포함하는 제3요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명명했다( $\alpha=.55$ ,  $M=2.54$ ,  $SD=.83$ ). 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62.1%로 나타났다.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평균값을 구해 응답자의 요인별 점수로 활용했다.

표 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 이유 요인분석

	직접적 성관계	자위 행위	성적 호기심
성에 대한 콤플렉스 극복	.80	.14	.08
파트너의 요구로	.79	.02	.10
포르노스타처럼 되고 싶어서	.79	.18	.01
성관계 전후 강한 성적 자극을 위해	.70	.31	.17
새로운 성적 체위를 알려고	.55	.20	.49
기이한 섹스행위를 보려고	.51	.31	.25
성적 흥분을 위해	.08	.88	.14
자위를 위해	.22	.86	-.10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36	.60	.07
호기심으로	.00	-.19	.75
성에 대한 지식을 위해	.37	.05	.67
따분해서	.03	.38	.66
Eigen value	3.28	2.34	1.84
% of variance	27.3	19.5	15.3

주) Varimax회전방법으로 아이겐값이 1 이상인 요인만 추출함

남녀 대학생들이 사이버섹스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이 [표 2]에 제시됐다. 먼저, 사이버섹스는 육체적 피해가 없고 안전한 섹스를 위한 대안이라는 항목을 포함하는 제1요인은 “대안적 섹스”라고 명명했다( $r=.35, p<.001, M=2.61, SD=.75$ ). 사이버섹스는 실제섹스이며 파트너가 있는 경우, 사이버섹스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라는 항목을 포함하는 제2요인은 “실제섹스”라고 명명했다( $r=.36, p<.001, 2.8, SD=.64$ ). 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68.5%로 나타났다.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평균값을 구해 응답자의 요인별 점수로 활용했다.

표 2.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대안적 섹스	실제 섹스
사이버섹스는 안전한 섹스의 대안이다	.82	-.11
사이버섹스는 육체적 피해가 없는 섹스다	.81	.04
사이버섹스는 실제 섹스다	.12	.83
파트너가 있는 경우, 사이버섹스는 배우자에 대해 부정행위다	-.20	.81
Eigen value	1.38	1.36
% of variance	34.4	34.1

주) Varimax회전방법으로 아이겐값이 1 이상인 요인만 추출함

## 2.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이유

성별 및 인터넷 음란물 이용량에 따라 음란물을 탐색하는 이유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를 위해 음란물 탐색이유에 관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일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했다[표 3]. 먼저, 직접적 성관계 요인과 관련해서 성별과 인터넷 음란물 이용량의 주효과가 각각 발견됐다. 남학생들이( $M=1.74, SD=.66$ ) 여학생들에( $M=1.4, SD=.61$ ) 비해 직접적 성관계 차원에서 음란물을 찾는 경향이 높았다[ $F(1,194)=8.66, p<.01$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탐색이 많을수록( $M=1.83, SD=.72$ ) 적은 경우에 비해( $M=1.47, SD=.57$ ) 직접적 성관계 차원에서 음란을 탐색하는 경향이 높았다[ $F(1,194)=13.33, p<.001$ ].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위행위 요인과 관련해서도 성별과 인터넷 음란물 이용량의 주효과가 각각 발견됐다. 남학생들이( $M=3.06, SD=.82$ ) 여학생들에( $M=1.76, SD=.85$ ) 비해 자위행위 차원에서 음란물을 찾는 경향이 높았다

[ $F(1,194)=110.11, p<.01$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탐색이 많을수록( $M=3.09, SD=.89$ ) 적은 경우에 비해( $M=2.27, SD=.10$ ) 자위행위 차원에서 음란물을 탐색하는 경향이 높았다[ $F(1,194)=13.33, p<.001$ ].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성적 호기심 요인과 관련해서는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194)=4.51, p<.05$ ].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 많고 적음에 무관했으나,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량에 따라 성적 호기심에 관한 정도가 크게 벌어졌다( $M_{많은} = 2.92$  vs  $M_{적음} = 2.4$ ).

표 3.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 이유

구분	MS	F(1,194)
직접적 성관계		
성별(a)	3.40	8.66**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b)	5.23	13.33***
(a) * (b)	.29	.73
오차	.39	
자위행위		
성별(a)	63.55	110.1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b)	20.15	34.91***
(a) * (b)	.07	.12
오차	.58	
성적 호기심		
성별(a)	.87	1.29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b)	2.49	3.69†
(a) * (b)	3.04	4.51*
오차	.68	

주) \*  $p<.05$ , \*\*  $p<.01$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 3.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성별과 인터넷 음란물 이용량에 따라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대안적 섹스로서의 사이버섹스와 실제 섹스로서의 사이버섹스 두 요인에 대해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남녀 대학생들의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 이유와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성별

과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 203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대학생들이 인터넷에서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이유는 파트너와의 직접적 성관계요인, 자위행위요인, 성적호기심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직접적 성관계요인은 성행위 전후 강한 성적자극을 찾거나 파트너의 요구로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벗어나고 새로운 성적 체위나 섹스 행위를 보기 위한 이유도 함께 포함된다. 자위행위요인은 자위를 위한 시각적 자극물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호기심요인은 성에 대한 정보와 궁금증 및 따분함을 달래기 위해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탐색요인 각각에 대해 응답자들의 성별과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직접적 성관계 및 자위행위요인에 있어 성별과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또한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이 많을수록 성관계 및 자위를 위해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남성들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은 대부분 직접적 성관계와 자위행위를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탐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성적호기심 요인에 대해서는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의 주효과와 성별 및 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이 많은 여성들일수록 성적호기심 때문에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여성들은 성에 대한 지식이나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남녀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이유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남자들은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과는 무관하게 성행위(섹스 혹은 자위) 맥락에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포르노그래피 탐색에 있어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미 포르노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여성들은 다른 어떤 집단(예: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노출이 많은 남성)에 비해 성적호기심 충족을 위해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자들은 보다 말초적 차원에서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한다면, 기존에 포르노그래피를 많이 본 여자들은 정보추구나 오락적 차원에서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대학생들은 사이버섹스를 대안적 섹스와 실제 섹스라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대안적 섹스는 사이버섹스를 성관련 질병 등 육체적 위험이 없는 안전한 섹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섹스는 사이버섹스를 실제섹스로 간주하면서 파트너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과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에 따른 이들 두 가지 요인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두 독립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근거할 때, 남자일수록 혹은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노출량이 많을수록 사이버섹스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녀 모두 사이버공간에서 성적인 메시지(이미지, 동영상)를 주고받으면서 성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남녀 대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성 건강 차원에서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Wright와 Randall은 미국에서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사회조사(GSS) 자료를 대상으로 남자응답자들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와 위험한 성적 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들은 남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이 성병감염, 다양한 성적 파트너, 매춘빈도 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29]. Wright와 Randall의 발견은 직접적 성관계와 자위행위를 위해 포르노그래피를 탐색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한국 남자 대학생들도 성병이나 여러 명의 섹스 파트너 및 매춘 등 건전하지 못한 성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한 동기나 목적은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들의 정보적/정서적 차원의 포르노그래피 이용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성관련 정보추구가 보편화 되었지만[30], 그것을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해결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르노그래피는 올바른 성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에 대한 왜곡된 현상을 확산한다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할 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성과 관련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포르노그래피가 성관련 정보원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31-33].

남녀 대학생들이 사이버섹스가 섹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비슷한 인식을 보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섹스는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를 보면서 자위를 하는 소극적 성행위와는 달리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성행위이며[12]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육체적 섹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사이버섹스를 성적 자율성과 해방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12][13]. 그러나 사이버섹스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나 사례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이버섹스는 성적 파트너와의 친밀감 형성보다는 성적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성관련 질병에 노출될 위험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섹스는 성에 대한 정서적·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섹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을 비롯한 잠재적 성인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정적 감정을 평생 갖도록 할 수도 있다. 사이버섹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성적 역치(sexual threshold)가 계속 높아져 보다 강한 자극물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탐색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설문에 앞서 응답자들에게 사이버섹스를 Döring[12]의 정의에 근거해 협의적 관점의 정의를 제공했지만, 온라인설문의 특성상 사이버섹스라는 개념에 대해 응답자들이 동일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질문에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응답자 중에는 단순한 포르노그래피 이용을 포함하는 광의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질문 내용이 민감했던 만큼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편견(social desirability bias)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가

능성도 있다. 즉, 질문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근거해 대답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과 관련한 설문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연구 결과의 한계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어떤 이유로 탐색하고 있으며 그러한 탐색이 성별과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또한 사이버섹스에 대한 차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밝혀내고, 이를 통한 성과 관련한 건강과의 연결점을 모색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1] <http://bit.ly/16c6iic>
- [2] <http://bit.ly/WObq8x>
- [3] <http://bit.ly/dqfRhb>
- [4] 심재웅,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시기가 음란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6호, pp.75-104, 2010.
- [5] 이창훈, 김은경,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09-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6] <http://bit.ly/YV0r0L>
- [7] A. Cooper, “Sexuality and the Internet: Surfing into the new millennium,”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1, No.2, pp.187-193, 1998.
- [8] N. Malamuth, T. Addison, and M. Kos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are there reliable effects and can we understand them?,”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Vol.11, pp.26-91, 2000.
- [9] 김유정,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 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pp.45-84, 2010.
- [10] 최명일,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음란물 노출이 실제 성 태도에 끼치는 영



- 향에 관한 연구”, 제53권, 제2호, pp.49-69, 2009.
- [11] Y. Binik, "Sexuality and the Internet. Lots of hyp(otheses)-only a little data," *Journal of Sex Research*, Vol.11, pp.77-89, 2001.
- [12] N. Döring, "Feminist views of cybersex: Victimization, liberation, and empowerment,"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3, No.5, pp.863-884, 2000.
- [13] 심영희, "사이버섹스: 새로운 친밀성의 가능성인가?",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제2호, pp.101-133, 2005.
- [14] R. Fisher, I. Cook, and E. Shirkey, "Correlates of support for censorship of sexual, sexually violent, and violent media," *Journal of Sex Research*, Vol.31, No.3, pp.229-240, 1994.
- [15] B. Paul and J. W. Shim, "Gender, sexual affect, and motivations for Internet pornography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Sexual Health*, Vol.20, No.3, pp.187-199, 2009.
- [16] S. C. Boies, "University students' uses of and recreations to online sexual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Links to online and offline sexual behavior,"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Vol.11, pp.77-89, 2002.
- [17] A. Chen, M. Leung, C. Chen, and S. Yang,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mong Taiwanese adolescents,"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Vol.41, No.1, pp.157-164, 2013.
- [18] <http://bit.ly/i1dbkM>
- [19] V. Yoder, B. T. Virden III, and K. Admin, "Internet pornography and loneliness and associa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Vol.12, No.1, pp.19-44.
- [20] <http://bit.ly/skOMP0>
- [21] D. Delmonico, "Cybersex: High tech sex addic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Vol.4, No.2, pp.159-167, 1997.
- [22] A. Cooper, D. Delmonico, and R. Burg, "Cybersex users, abusers, and compulsives: New findings and implication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Vol.7, pp.5-29, 2000.
- [23] J. Dryer and R. Lijtmaer, "Cyber-Sex as twilight zone between virtual reality and virtual fantasy: Creative play space or destructive addiction," *Psychoanalytic Review*, Vol.94, No.1, pp.39-62, 2007.
- [24] A. Carvalheira and F. Gomes, "Cybersex in Portuguese chatrooms: A study of sexual behaviors related to online sex,"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Vol.29, No.5, pp.345-360, 2003.
- [25] M. Brand, C. Laier, and M. Pawlikowski, "Watching pornographic pictures on the Internet: Role of sexual arousal ratings and psychological-psychiatric symptoms for using Internet sex sites excessively," *Cyber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Vol.14, No.6, pp.371-377, 2011.
- [26] P. Goodson, D. McCormick, and A. Evans, "Searching for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An exploratory study of college students' behavior and attitud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30, No.2, pp.101-118, 2001.
- [27] 구현영, 김성숙,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37권, 제7호, pp.1202-1211, 2007.
- [28] P. Goodson, D. McCormick, and A. Evans, "Sex and the Internet: A survey instrument to assess college student' behavior and attitudes,"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3, No.2, pp.129-149, 2000.
- [29] P. Wright and A. Randall,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and risky sexual behavior among adult males in the United Sta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8, No.4,

pp.1410-1416, 2012.

- [30] J. W. Shim, The use of e-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behavior change: The role of perceived health status and types of e-health information use. *Open Communication Journal*, Vol.2, pp.156-163, 2008.
- [31] J. S. Carroll, L. M. Padilla-Walker, and L. J. Nelson, "Generation XXX pornography acceptance and use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23, No.1, pp.6-30, 2008.
- [32] C. T. Lawrence, "Pornography as a source of sex inform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Some consistent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Vol.72, No.2, pp.407-412, 1993.
- [33] A. Spink, H. Cenk Ozmutlu, and P. Lorence, "Web searching for sexual information: An exploratory study,"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40, No.1, pp.113-123, 2004.

## 저 자 소 개

심재웅(Jae Woong Shim)

정회원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96년 8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석사)
  - 2006년 12월 :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텔레커뮤니케이션전공(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성과 미디어, 청소년 교육